



즉시 배포용: 2022년 1월 31일

KATHY HOCHUL 주지사

구정에 대한 KATHY HOCHUL 주지사의 진술

"저는 뉴욕의 아시아 문화 유산 공동체와 함께 구정을 기념하는 오랜 전통에 동참하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2월 1일은 구정이며, 2022년을 호랑이의 해로 맞이하여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견뎌온 뉴욕 시민들의 힘과 회복력을 적절히 상징합니다."

"뉴욕의 아시아 공동체는 오랫동안 주의 성공에 필수적인 부분이었으며 뉴욕 시민으로서 우리가 누구인지 규정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난 한 해를 함께 돌아보며 희망과 낙관을 가지고 내일을 향해 나아가도록 합시다. 구정 전날과 구정 당일엔 가족과 재회, 감사의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며, 우리 아시아계 미국인 친구, 이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운 이 명절을 모든 뉴욕 시민들이 공유하길 바랍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